광주FC, 기세 몰아 대어 울산 사냥

K리그1 19라운드 6일 원정경기
엄원상 '골의 추억' 다시한번
캡틴 여름 복귀…연승 기대
K리그2 전남, 수원과 한판 승부

'베스트 팀' 광주FC가 대어 울산현대 사냥을 위해 적지로 간다.

광주는 오는 6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과 2020 K리그1 1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울산으로 가는 광주의 발걸음이 가볍다. 광주는 앞서 18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으며 6-4 대첩의 승자가 됐다. 광주는 이 경기를 통해 18라운드 베스트 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 경기에서 펠리페는 멀티골로 10득점에 성공, 광주 외국인 선수 1부리그 최다득점(기존 8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간 MVP에 올랐다.

이청용, 윤빛가람, 고명진, 신진호 등 전 포지션에 걸쳐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배치한 울산은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가장 많은 41골을 터트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실점은 11차례로 묶으면서 최소실점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상대전적에서도 울산이 10승 5무 1패로 광주를 압도한다. 하지만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광주가 '승리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5월 30일 안방에서 열린 4라운드 울산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장식했다.

이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이자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엄원상이 특유의 스피드로 경기 시작 11분 만에 선제골을 장식했다.

두 번째 골도 광주 이한도가 기록했지만 아쉬운 자책골이었다. 승리에는 이르지 못 했지만 광주는 울산에 일격을 가하는 무승부를 만들었다. 이 경기를 통해 광주는 시즌 첫 승점도 기록했다.

이번에도 엄원상의 스피드가 공격의 핵심이다. 펠리페, 윌리안의 움직임도 매섭다.

펠리페가 K리그1 무대 적응을 끝내고 'K리그2 득점왕'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윌리안은 최근 상승세의 주역이다. 윌리안은 앞선 대구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줬다.

여름의 복귀도 반갑다. 사후 징계로 두 경기에 결장한 '캡틴' 여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중원으로 돌아온다.

전남드래곤즈는 수원으로 가서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놓는다.

전남도 6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18라운드 대결을 시작한다.

앞서 홈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한 전남은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김현욱의 페널티킥으로 극적인 1-1 무승부를 거뒀다. 퇴장 악재에서 일궈낸 무승부라 의미가 있었다.

이 무승부로 승점 24점(5승 9무 3패)을 만든 전남은 4위 경남FC와 5위 서울이랜드를 승점 1점 차 안에서 쫓고 있다.

17경기 11실점으로 여전히 최소실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남은 '주장' 김주원을 필두로 황기욱, 박찬용의 안정된 스리백으로 리그 득점 선두인 안병준(16골), 4위 마사(8골)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

관건은 화력이다. 최소실점의 수비력에도 전남의 공격이 아쉽다. 17경기에서 17골에 만족하는 등 이종호, 쥴리안, 임찬울, 올렉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크다.

전경준 감독은 이에 최근 두 경기에서 수비수 곽광선을 최전방에 배치하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곽광선의 '깜작 활약'에 하승운, 김보용, 에르난데스 등 신예 선수들의 패기를 더해 전남이 승리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가 엄원상의 스피드를 앞세워 울산전 승리에 도전한다. 사진은 앞선 4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빠른 스피드로 드리블 돌파에 성공한 엄원상(왼쪽)의 모습. 〈광주FC 제공〉

모든 근육 짜내 '혼신의 리턴'

3일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2회전에서 카밀라 조르지(74위·이탈리아)가 오사카 나오미(9위·일본)의 공을 받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 '이번엔 여기까지'

샤포발로프에 1-3 역전패
US오픈 테니스 3회전 불발

권순우(73위·CJ후원)가 생애 첫 테니스 메이저대회 단식 3회전 진출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당진시청 소속 권순우는 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2000달러) 셋째날 남자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데니스 샤포발로프(17위·캐나다)에 1-3(7-6〈7-5〉 4-6 4-6 2-6)으로 역전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형택(은퇴)과 정현(144위·제네시스 후원)에 이어 한국 남자 선수 통산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2회전에 오른 스물세 살 권순우는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자신보다 2살 어리지만 이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이 있고, 개인 최고 랭킹 13위를 찍었던 샤포발로프를 상대로 첫 세트를 따내며 선전했다.

권순우는 치밀한 경기 운영으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끈질기게 지켜내며 대등한 대결을 벌여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로 끌고 갔다. 타이브레이크에서 2-5까지 뒤졌으나 샤포발로프가 더블 폴트를 범하는 등 흔들린 틈을 타 내리 5점을 따내 첫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 초반에도 비슷한 경기 양상이 반복됐다. 권순우는 샤포발로프의 강서브에 밀리는 듯하면서도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기회를 노렸다.

베이스라인을 지키던 샤포발로프는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적극적으로 네트 플레이에 나서 분위기에 변화를 줬고, 이게 먹혔다.

샤포발로프가 처음으로 권순우 서브 게임을 따내며 브레이크에 성공했고, 권순우는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세트를 내줬다.

권순우는 3세트에 첫 브레이크 포인트를 따냈으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듯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곧바로 두 차례 서브 게임을 내줘 세트 스코어 1-2로 밀렸다. 권순우는 앞선 1회전에서 타이-손 크위아트코스키(187위·미국)를 제물로 메이저 대회 본선 첫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연합뉴스

당구, 이젠 팀으로 겨룬다… PBA 팀리그 10일 개막

프로당구협회(PBA)가 새롭게 선보이는 팀리그가 오는 10일 첫발을 내디딘다.

'신한금융투자 PBA 팀리그 2020-2021'은 10일부터 제1라운드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6차례 정규 라운드를 치른다.

이후 2월 말 상위 3개 팀이 플레이오프 라운드로 우승팀을 가린다.

정규 라운드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팀별 5경기씩 총 15경기가 열리며, 5일간 매일 3경기씩 개최된다.

경기방식은 남자복식(15점)-여자단식(11점)-남자단식(15점)-남녀혼복(15점)-남자단식(15점)-남자단식(11점) 순으로 진행된다.

6세트 중 4세트를 먼저 따내면 승점 3을 획득하게 된다. 세트 스코어 3-3일 경우에 무승부로 처리되며 무승부 시 1점을 올린다.

팀리그에는 블루원 엔젤스, 신한 알파스, 웰컴저축은행 웰뱅피닉스, 크라운해태 라온, SK렌터카 위너스, TS·JDX히어로즈 등 6개 팀이 참가한다.

10일 출범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여의 원년 리그 대장정을 시작한다.

PBA 팀리그는 10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제1라운드에 들어간다.

팀리그의 중계 방송사는 SBS, SBS스포츠, KBSN스포츠, 빌리어즈TV로 전 경기가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남녀 동일 임금 지급 결정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앞으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는다.

3일(한국시간) 브라질축구협회(CBF)에 따르면 호제리우 카보클루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대표팀 소집 기간에 남녀 선수 모두에게 상금과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카보클루 회장의 발표에 AFP통신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마르타, 포르미가, 레티시아 산투스 같은 여자 선수들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네이마르, 가브리에우 제주스, 호베르투 피르미누 등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CBF는 지난 3월 브라질 여자 대표팀이 올해 처음 소집돼 프랑스에서 열린 초청대회에 참가했을 때 이미 '평등 임금'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남녀 축구 대표팀에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축구대표팀 등이 양성평등 임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대회 2연패를 이룬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남자 대표팀과의 임금 격차 등 차별대우에 항의하며 지난해 3월 미국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올해 5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남자장대높이뛰기 뒤플랑티스
붑카 이후 최고 기록…6m07

남자장대높이뛰기 신성 아르망 뒤플랑티스(21·스웨덴)가 '전설' 세르게이 붑카(57·우크라이나) 이후 가장 높이 날아오른 선수가 됐다.

뒤플랑티스는 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6m07을 날아올랐다.

실외 경기 개인 최고 기록(종전 6m05)을 경신하며 우승을 확정한 뒤플랑티스는 1994년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가 세운 6m14보다 1㎝ 높은 6m15에 도전했다.

첫 번째 시기에서 실패한 뒤플랑티스는 2, 3차 시기를 포기했다.

붑카가 보유한 세계기록은 넘지 못했지만, 6m07도 무척 의미 있는 기록이다.

실외 장대높이뛰기에서 6m07 이상을 뛴 선수는 뒤플랑티스와 붑카, 단 두 명뿐이다.

붑카는 6m14~6m08까지 세계 1~7위 기록을 독식하고 있다. 뒤플랑티스는 역대 기록 기준 공동 8위, 선수 기준 단독 2위에 올랐다.

뒤플랑티스는 실내 경기에서는 이미 세계 기록을 작성했다. 그는 올해 2월 9일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미팅에서는 6m17을 넘어, 2014년 라빌레니가 작성한 종전 실내 종목 세계기록 6m16을 1㎝ 뛰어넘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테넷, 반교: 디텐션
3관	오케이 마담,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4관	오! 문희
5관	오! 문희
6관	테넷
9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플	오! 문희
8관 씨네커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고스트 오브 워,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퐁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